

# 1973年 景氣와 시멘트 産業

郭 昌 權

<韓國經營科學研究所專門委員>

## I. 最近의 景氣動向

작년 후반, 그리고 금년 연초부터 經濟活動 全般에 걸쳐 나타났던 활기는 중반에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예년 같으면 夏閑期라고 해서 계절적인 침체가 불가피하였을 것이나 금년은 오히려 평년보다 높았던 異常高溫氣象과 함께 「暴炎 속의 熱景氣」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의 상승 경기가 무엇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어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에 대한 대답은 한국은행 조사부에서 발표한 1973年度 1/4分期 국민 소득 추계 결과와 최근의 경기 예고 지표 동향에서 집약되어 나타났다.

이에 의하면 지난 1/4分期(1~3월)中 국민 총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19.0%의 實質成長을 이룩하였는데 이는 전년의 같은 기간중 6.4% 성장을 훨씬 능가함은 물론 1967년 3/4分期의 19.1% 成長以來의 고도 성장이라고 하였다. 국민 총생산의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同期間中の 輸出好調(年率 77.9% 增加)에 힘입은 製造業 生産의 增加(同30.8%)와 8·3措置 이후의 국내 신용 증가, 기업자금 원활 등 資金需給面에서의 플러스 효과가 뒷받침된 것이었다.

한편 경기 예고 지표의 추이에서 보면 재작년(1971年) 10월부터 작년(1972年) 6월까지 9개월간 계속되었던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서 작년 후반부터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여 그것이

금년 들어서 가속화되기 시작하였는데 마침 전세계적으로 번진 경기 상승에 힘입은 수출 수요의 팽대가 그대로 생산 설비의 가동률 제고, 시설 확장 투자에로 연장되고 나아가 內需 부문에까지 파급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예고 지표의 종합 신호는 1970년 1월의 2.2에서 1971년 1월의 1.1 및 1972년 4월의 0.6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1972년 7월의 1.1을 거쳐 1973년 1월 2.0 그리고 同年 5월의 2.5로 급상승하고 있다.

## II. 景氣의 動力

그런데 主題에서는 약간 벗어나지만 여기서 경기 변동은 어째서 일어나며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에 대한 일반론을 간단히 살피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근대경제학에서의 경기 변동이론은 ① 각종 경제활동이 時系列上 순환적 기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② 이때는 그 순환성을 투자 활동면에서 각각의 특징을 理論以前에 이미 經驗的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景氣理論 자체는 크게 ① 貨幣數量說이니, ② 過剩投資說이니 혹은 ③ 過少消費說이니 하여 세 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요컨대 投資가 經濟의 內在的 因子이건, 外形的 表現이건간에 景氣循環의 主動力이 되고 있다는 데는 공통되고 있다. 즉 투자는 변동하며 그 변동은 순환성을 가진다.

투자는 통화 與信으로 나타나고 施設로서도 나타나는데 正常狀態라면 營利와 競爭이 支配하는

市場經濟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는 가격 변수의 작용을 통하여 실물 생산 수준에 반영되게 마련이다. 결국 生産, 物價, 資本(通貨)은 景氣局面을 설명하는 3大 要素이다.

한편 투자는 그 대상이 있어야 한다. 투자의 대상이 달라지면 투자 활동의 起伏도 달라진다. 그 대상은 크게 ① 在庫資金에 투자하는 경우 ② 設備資産에 投資하는 경우 그리고 ③ 建設投資로 나뉜다. 그 결과 경기 파동은 이 투자 대상에 대응하며 그 주기가 달라진다.

즉 ① 주기가 40개월전후인 것 (Kitchin Cycle 在庫循環) ② 7개년 内外인 것 (Juglar Cycle 設備循環) 및 ③ 15年 前後인 것 (Kuznetz Cycle 建築循環)으로 구분되며 長期波動으로서 50~60年間的 주기를 가진 Kondratief Cycle도 檢出하고 있으나 보통 20年 以上인 경우에는 景氣循環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傾向線(Trend)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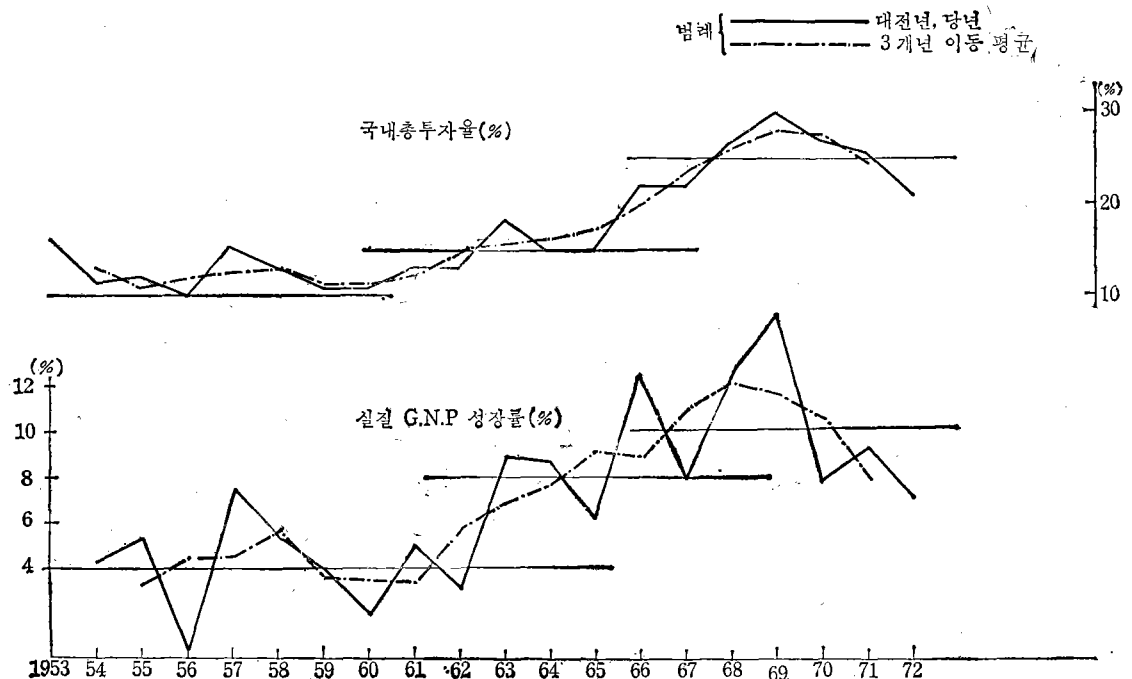
각 순환주기는 경기의 최고시점에서 최저시점을 거쳐 다시 최고시점 그리고 최저시점으로…… 이렇게 上下運動을 한다. 이를 경기국면이라고 하여 好況, 後退, 沈滯, 回復의 4個局面으로 나누는 것이 美國의 밋첼(W. C. Mitchell) 이후의

관례로 되어 있다.

그러면 현재의 경기는 주기면에서 그리고 경기 국면이란 면에서 각각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주기면에서 보면 위에서 40개월 전후 주기, 7개년 전후 주기, 및 15년 전후 주기의 어느 주기에서진 1973년 상반기중의 경기 회복 단계를 결합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경기 상승이 재고순환의 것이라면 앞으로 10개월 내외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설비 순환이라면 2~3년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건축순환이라면 5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일단은 豫想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는 한 시점에서 이들 3개 주기를 동시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고순환의 한주기가 설비순환이나 건축순환의 회복기에 걸쳐있을 수도 있고 후퇴기 또는 침체기에 걸쳐 있을 수도 있다. 이때는 경제 통계 자료에 의한 장기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게 된다.

### III. 현재의 경기 국면

<그림-1>은 年次資料에 의한 G. N. P.의 대전년 증감율과 총투자율(%)의 추이를 그린 것인데



<그림-1> 總投資率과 國民總生産 變動의 推移

먼저 눈에 띄는 것은 G. N. P 성장률이나 총투자율이 모두 1950年代보다 1960年代 또는 1970年代로 시점이 옮겨가면서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추세 가속화 현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다. 이 「추세 가속화 현상」은 개발과정에 있는 경제가 장기 파동을 수반하면서 成長速度 자체가 점차 上昇加速化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이유로서는 해당 경제 내부의 技術水準의 變化, 경제조직의 高度化, 產出高에 대한 需要增大率의 變化, 分配構造의 變化 등이라고 보고 있다. 즉, 資本收容構造와 分配率構造의 變化에서 찾는 것이다.

그라프의 G. N. P 성장률(實線)은 명확히 3年内外의 주기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전술한 Kitchin Cycle(在庫循環)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년 주기를 除去하고 보면 보다 長期의 循環起伏이 나타날 것이다. 그 除去方法의 하나로써 그라프에서는 3個年 移動平均의 對前年增減率을 구하여 點線으로 나타낸 바 이때는 밀점(底點)으로 보아(즉 ※표시가 있는 시점간의 비교) 6년 전후의 순환기간이 나타나 마치 Juglar Cycle 즉 設備循環의 주기를 보이고 있고 또 그보다 긴 Kuznetz Cycle도 1959년 또는 1960년을 밀점으로 15년 주기에 근접하고 있다.

그런데 특기할 것은 Kitchin Cycle이나 Juglar Cycle 그리고 Kuznetz Cycle이 모두 공교롭게도 1972년을 향하여 밀점 즉 경기침체기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서 1970년 이후의 경기하강은 3개 주기가 한데 모이지 않던 다른 不況時期 예컨대 1966년 전후보다 훨씬 심각하였었다고 할 수 있다. G. N. P. 성장률의 이와 같은 시간적 기복은 총투자율의 경우에도 역시 적용되나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재고순환보다 설비순환의 기복이 보다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면서도 또 한가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Kitchin Cycle이나 Juglar Cycle은 점점 뚜렷하여져 가고 있는 반면 15년 이상인 Kuznetz Cycle은 점차 不分明하여지면서 어떠한 趨勢變動(Trend) 속에 흡수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1970年代 中盤에 들어서면서부터 投資「패턴」이 중견의 건축투자「붐」은 在庫投資나 設備投資 속에 흡수되는 형태로 轉換되리라고 豫想까지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IV. 建築景氣의 背景

하긴 G. N. P 와 總投資率의 變動推移만으로서

<表-1>

주요 경기 지표의 변동

	통 화 량	생산지수	도매물가	어음교환액	철도수송량	건축허가면적	輸 出
1969	10억원 (45.5) 217.9	1970=100 (19.9) 89.7	1970=100 (6.8) 91.6	10억원 (60.3) 7,363	4M <sub>t</sub> (5.7) 29,153	4m <sup>3</sup> (24.0) 9,572	百萬弗 (36.7) 622.5
70	(40.7) 306.5	(11.5) 100.0	(9.2) 100.0	(14.2) 8,408	(4.0) 30,298	(12.7) 10,787	(34.2) 835.2
71	(17.7) 360.8	(15.4) 115.4	(8.6) 108.6	(18.9) 9,998	(1.3) 30,696	(12.2) 9,619	(27.8) 1,067.6
72	(41.2) 509.4	(14.6) 132.2	(14.0) 123.8	(10.8) 11,078	(△0.4) 30,502	(△10.9) 8,701	(52.1) 1,624.1
72.4	(12.6) 359.5	(9.5) 125.5	(17.3) 123.1	(4.1) 839	(2.7) 2,650	(△26.4) 774	(42.4) 112.5
5	(15.7) 365.1	(10.3) 136.7	(17.5) 124.4	(14.5) 951	(5.3) 2,762	(0.4) 855	(42.1) 130.2
6	(26.8) 380.5	(12.9) 137.2	(15.6) 124.7	(10.7) 972	(2.0) 2,622	(△14.9) 818	(40.2) 141.0
73.4	(63.0) 586.1	(31.6) 165.2	(4.5) 128.6	(28.5) 1,078	(13.1) 2,998	(107.4) 1,605	(99.5) 224.4
5	(58.2) 537.6	(31.5) 179.7	(4.1) 129.5	(26.6) 1,204	(16.5) 3,217	(97.5) 1,689	(121.3) 288.1
6	(56.1) 593.8	(29.2) 177.2	(4.0) 129.7	—	(22.6) 3,214	(152.9) 2,069	(84.1) 259.6

資料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2

註 : ( ) 안은 대전년 동기 증감률(%)임.

<表-2>

주요 항목별 경기 예고 지표

	종합경기지표	화 패 량	어음교환고	산업생산	수 출	도매물가	건축허가
1970. 3	(1.5) 1.9	(19.0) 38	(40.0) 29	(16.5) 13	(22.5) 28	(3.0) 5	(12.0) 61
12	1.3	15	4	15	13	3	-28
1971. 3	1.3	18	11	25	23	2	-45
6	1.4	26	22	22	12	3	-27
9	1.2	14	18	19	23	5	-17
12	1.0	18	21	9	22	9	- 8
1972. 3	0.8	19	18	7	35	9	-27
6	0.9	11	10	13	29	7	- 2
9	1.4	24	8	13	51	5	12
12	1.8	25	9	29	44	2.3	29
1973. 3	2.3	39.7	19.0	30.4	81.8	0.6	129.9
6	2.4	46.8	33.0	30.6	85.4	2.4	188.6

資料 : 經濟企劃院

註 : ( ) 안의 숫자는 경기 국면의 변동 계계를 나타냄.

전체 경기의 동향을 단정하는데 무리가 있다고도 할 것이다. 실제로 밋첼이 지적한대로 경기 순환은 각종 경제활동의 순환 변동을 취급한 것이므로 그 振幅도 광범위할 뿐 아니라 이들 경제 활동간의 時差(Time lag)라는 중요한 요인의 작용을 지나쳐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순환 현상을 수백개나 되는 곡선으로 그릴 수도 없는 것이며 또 그럴싸하게 간단한 경기 관측 방법도 미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여기 와서 우리는 경기에 작용하는 주요 경제 지표의 추이를 추려 보는 것이다.

<表-1>에서의 각 경제 지표는 경기 속성이 강한 이른바 경기성 지표로 알려져 있는 것중의 일부이다. 이들 지표의 年間資料에 의한 對前年增減率을 보면 1969년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러던 것이 1972년에 이르러 그중 일부 즉 통화량, 도매물가 그리고 輸出 등이 反轉 上向되더니 1973년에 이르러 이 上向성이 더욱 현저하게 된다. 통화량의 경우 4~6月中에 1972년에는 前年同期對比 10~30%의 증가를 보였지만 1973년에는 그것이 60% 内外로 높아졌고 輸出은 前年の 40% 内外에서 100% 内外로 되었다.

그에 따라 生産水準은 전년의 10% 内外 上昇에서 30% 内外로 그리고 物動輸送需要의 急膨脹을 초래하여 鐵道輸送量이 前年の 2~5% 增加

템포에서 20% 差 以上이나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에는 15~25%의 減縮에서 일약 100~150%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表-2>는 이들 통계량을 景氣指標로 다루었을 때의 4分期別(期末月) 推移를 본 것이다.

이제 그중 건축경기가 급상승하게 된 배경을 좀더 검토하여 보자. 1973年初의 景氣上昇은 生産 景氣面에서 消費財보다는 生産財의 生産이 또 單用財보다는 耐久財 産業이 主動이 된 것이다. 적어도, 1972年初와 비교할 때 1973年初에는 消費財는 單用財 生産에서 10~20%의 變動率差를 두고 있는데 반하여 生産財生産은 30%差, 耐久財生産은 50~80%差를 두고 있다. 이는 耐久財, 非耐久財間 또는 生産財, 消費財間의 生産關係(生産函數)에서 勞動·資本間의 集約性 限界가 뚜렷하지 않음에도 資金投入에 있어 그만큼 消費經濟 패턴, 內需主導型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建設資材의 生産은 非耐久財이면서도 前年の 6~15% 減産에서 40% 内外의 增産으로 1年間에 50% 가량의 變動率 差를 보인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특히 住宅投資를 비롯한 建設活動은 한편으로는 高度의 消費財産業에 속하면서도 高度의 資本集約的 産業이라는데 있다. 지금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으로 그 郊장의 노동력

<表-3>

用財 區分別 生産變動 比較(對前年 同月比)

(單位：%)

	生 産 財				消 費 財		
	平 均	耐 久 財	原 材 料	建 設 資 材	平 均	單 用 財	耐 久 財
1972年 1月	10.4	△18.4	16.0	3.7	20.1	18.6	21.3
2月	△ 0.6	△25.7	10.1	△15.6	9.8	8.0	13.6
3月	4.2	△25.2	14.7	△ 6.8	11.7	9.6	19.1
4月	3.1	△19.4	11.8	△ 6.2	16.5	12.7	1.9
1973年 1月	39.5	62.3	37.2	35.5	30.9	14.7	75.3
2月	34.0	52.8	28.6	44.1	27.1	13.9	46.7
3月	36.6	49.1	34.2	37.7	31.8	17.9	59.4
4月	37.1	60.0	33.0	38.2	26.7	14.3	71.9

註：經濟企劃院 統計局 撰，産業生産指數에 의한 계산인.

<表-4>

工 事 契 約 實 績

(單位：10억원)

	合 計	工 種 別			登 記 機 關 別		
		土 木	建 築	特 殊 建 設	政 府 公 共 機 關	海 外 外 國 機 關	民 間
1 9 6 6	46.3	23.3	22.4	(0.54)	40.9	1.1	4.3
6 7	66.6	29.3	35.2	2.1	54.5	3.4	8.7
6 8	123.9	64.5	56.2	3.3	98.2	3.7	22.0
6 9	173.1	78.2	82.4	12.4	129.6	4.3	39.2
7 0	183.3	79.8	91.5	11.9	139.7	10.4	33.2
7 1	229.6	111.3	104.7	13.6	186.7	11.5	31.4
7 2							

資料：大韓建設協會

이 大小建設工事に 集約的으로 投入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역시 방대한 자금의 뒷받침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밖에 각종 토목·건축 및 도로·항만 등에 대한 특수 건설 사업 등이 정책 당국과 공공 단체에 의하여 또 민간 활동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9 년을 꼭지

점으로 하여 그뒤 건설경기가 둔화된 것은 주로 민간 부문이며 정부 및 공공 부문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1972年末에서부터는 여기에 다시 수출 수요에 힘입은 제조업 활동의 활발화, 가동물 제조, 설비 투자 수요의 급증으로 공업 건축이 전년의 24.7% 上昇에서 무려 280.9%의 상승 즉 3.8배의 건축투자 수요가 늘어났고 주택 건설에

<表-5>

資 材 · 用 途 別 建 築 許 可 面 積 的 變 動

(單位：%)

	合 計	資 材 別				用 途 別			
		鐵 骨	벽돌·石造	木 造	其 他	住 宅	商 用	工 事 用	文 教 · 其 他
1 9 6 9	24.0	53.1	△ 3.0	12.0	53.1	25.3	14.6	18.9	44.7
7 0	12.7	3.9	25.8	18.9	2.1	23.2	0.7	0.3	7.0
7 1	△10.8	△ 9.0	△13.6	△23.7	2.1	△ 4.9	△11.1	△23.9	△21.6
7 2	△ 9.5	△20.5	5.4	△12.5	△20.8	△19.1	△13.7	30.1	4.7
72(3~5月)	△21.8	△27.8	△11.9	△27.8	△38.9	△ 2.3	△35.0	24.7	△10.5
73(3~5月)	100.9	107.2	120.8	△18.9	28.2	84.6	51.6	280.9	35.2

註：建設部「建設統計」資料에 의한 對前年 同月比 增減率(%)인.

서도 전년 다이너스 2.3%에서 84.6% 증가를 나타내었다.

건설활동이 이처럼 연초에 들어 서면서 활기를 찾게 된 이면에는 또 한가지 8·3措置에 의한 業界의 財務構造改善과 海外建設需要의 急膨脹 그리고 不實建設業體의 整備 등으로 企業活動面에서의 與件充足의 영향을 들 수 있다. 8·3措置 당시 정부가 접수한 私債申告額 약 3천 5백억원중 건설업계의 몫은 약 9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 금년들어 약 120개의 건설업체가 도태되고 25개업체가 정비대상으로 처리되었다. 실제로 기업경영분석자료(한국은행 조사부)에 의하면 건설업계는 1965년만해도 총자본중 자기자본 비율이 63.5%나 되었으나 그것이 해마다 줄어 1971년에는 21.3% 1972년(1~6月中)에는 24.2%로 까지 내려 갔었다.

#### V. 건설 자재로서의 시멘트 수급

건축자재의 생산은 1972年初에 年率로 10%内外의 減産을 보이던 것이 금년초에는 40%内外의 急増을 나타냈음을 위에서 보았다. 그런데 建

築資材中에서도 시멘트를 비롯하여 木材 및 鐵鋼類는 現代建設業에서는 필수적인 品目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들 품목의 生産高는 바로 建設活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에서 철강류는 종합제철의 가동과 함께 현단계로는 당분간 국내수요의 변동과 상관 없이 그 나름의 시설능력만큼 생산할 것이며 목재류는 대부분 原木을 輸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과 함께 국내 수요의 변동보다는 原料의 導入狀態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시멘트는 그동안의 급격한 신설·확장투자로 국내 공급 규모를 늘려 자급 능력을 갖추게 되었지만 年間 輸出規模는 겨우 1千萬弗에 불과하여 시멘트생산의 국내 수요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즉 국내 경기와 밀접하게 링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시멘트」의 국내생산은 경기침체기인 1972년 전기간을 통하여 그 전해인 1971년보다 약 40萬톤의 減産을 보였다. 그러던 것이 1973년에는 1~5月中에 전년 동기보다 37.4%의 增産을 보임으로써 55%의 변동차를 내었다. 이러한 증가율 폭의 격차는 목재류중 각재, 판재류와 철강

<表-6>

주요 건축 자재 수출 실적

(單位: 千\$, 千%)

	합		시멘트		강관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1969	79,162	349.8	3,275	291.0	3,634	28.5
70	91,746	427.2	4,442	450.9	7,552	51.8
71	124,274	543.9	10,587	1,007.9	20,100	155.7
72	153,623	1,116.0	12,718	1,176.8	68,122	464.0

資料: 關稅廳

<表-7>

주요 건축 자재의 수입 실적

(單位: 千\$, 千%)

	木材		시멘트		강관 및 잉곳트류	
	金額	數量	金額	數量	金額	數量
1969	108,422	3,226	379	15.7	(84,486) 46,240	412.8
70	125,306	2,902	89	1.0	(89,591) 57,253	361.1
71	153,700	3,306	187	0.7	(128,658) 80,671	889.4
72	140,826	3,514	106	1.6	(167,802) 124,000	937.6

資料: 關稅廳

註: ( ) 안은 철 및 철강 제품 총합계 금액임.

<表-8>

主要建築資材의 生産量 變動

	木 材 (千 m³)			페 인 트 (kl)	시 멘 트 (千 ㄲ)	鐵鋼製品 (千 ㄲ)		
	각 재	판 재	합 판			강 괴	봉 강	강 판
1 9 7 0	521.1	224.2	1,125.9	7,676	5,782	481.0	509.3	309.3
1 9 7 1	563.0	213.0	1,375.3	7,079	6,872	471.5	485.9	425.3
1 9 7 2	508.2	210.3	1,668.4	7,351	6,486	585.1	504.1	795.8
1 9 7 2 (1~5)	(△29.0)	(△19.0)	(14.9)	(7.2)	(△18.3)	(2.1)	(△20.0)	(97.5)
1 9 7 3	182.7	76.9	626.0	2,665	2,281	208.7	169.0	276.5
1 9 7 3 (1~5)	(37.1)	(29.6)	(28.3)	(7.3)	(37.4)	(23.5)	(24.9)	(81.7)
	250.5	99.7	803.2	2,860	3,134	257.7	211.1	502.3

資料: 經濟企劃院 「한국통계월보」 제15권 제7호.

註: ( ) 안은 對前年 同期比 增減率(%)임.

<表-9> 建築資材의 物價水準 變動比較 (單位: %)

	木 材 類	塗 染 料 類	시멘트 및 그 製品類	鐵鋼材類
72. 4	13.2	2.1	10.3	3.2
5	13.4	3.8	18.7	7.1
6	13.4	9.7	12.3	7.1
73. 4	29.4	7.6	△2.0	23.1
5	31.9	4.2	△1.9	20.3
6	33.3	△1.3	△1.6	20.8

註: 韓國銀行 都賣物價指數資料에 의한 對前年 同月比 增減率(%)임.

류중 봉강이 맞먹고 있으나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내 시장에서의 價格機構과 關係를 맺고 있는 점에서 시멘트와 그 市場屬性을 달리하고 있다. 즉 목재류와 철강류는 급년 상반기 중에 20~30%만큼 증산되었는데 이는 제품 시장에서 그와 비슷한 率만큼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짐으로써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시멘트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품 가격이 2%가량 下落하였는 바 이는 생산 증대에서 오는 시장 가격 下落이라는 현상이 불가피하였다고 보아진다.

현재 전세계가 원자재 파동으로 들떠 있는 중에 목재·시멘트·철강 등 이들 건축자재도 예외일 수 없으며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물가고가 국내 유통 조직에 파급됨에 따라 기업의 생리로서는 국내 시장보다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조건이 훨씬 유리하여지는 품목이 발생하였다. 그 현저한 예가 시멘트와 철강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철강류는 원래 국내 공급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 상향 조직에 여지가 있으나 시멘트의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서의

同業者간 販路競爭이 치열하고 또 거기에 수요자에게 제품을 보내는 수송수단도 不充分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출시장을 찾아야 할 것임에도 1972년까지는 수출규모가 국내 생산능력의  $\frac{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멘트 業界가 輸出市場에의 진출을 본격화한 것을 年間 百萬톤대에 들어선 1971년부터라고 보면 이제 겨우 발돋움한 셈이다. 여기서 시멘트 業界의 進路,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전략의 核點이 浮現된다.

1972年度에 國內의 시멘트 消費量은 5百萬톤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의 경기가 계속 상승기류를 타고 2~3년 계속한다고 하여도 1976년에 그것이 1千萬톤으로 바라보기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시멘트의 수급 전망에 대한 추계 자료로는 3차 5개년계획치(1976년 내외수 1,200萬톤)와 洋灰工業協會推定值(同 1,050萬톤)가 있으나 이들 모두 수출 규모는 百萬톤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잡았다. 그리하여 국내 생산능력은 3차계획에서는 막연히 수요에 맞추는 것으로 되어 있고 協會資料에서는 1973년을 기준으로 장차의 수급 過不足分을 提示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수출 시장을 靑소 평가하고 있다는 것과 국내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하에 시멘트 업계의 활로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업계 추정에서). 이는 아마도 1960年代의 급격한 시설 투자로 공급 능력을 7百萬톤 수준까지 끌어 올리자 부다드린 1970年代初의 경기 불황, 업계 침체에서 받은 충격이 컸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다.

	生 産	輸 出	軍 納	輸 入	在 庫	國內消費
1969	4,864.8	291.0	264.3	15.7	209.6	4,115.6
	(19.7)	(54.9)			(6.3)	(22.2)
70	5,821.6	450.9	119.8	1.0	222.9	5,029.0
	(18.0)	(123.5)			(5.6)	(10.8)
71	6,872.3	1,007.9	60.0	0.7	235.4	5,569.7
	( $\Delta$ 5.6)	(16.8)			( $\Delta$ 24.1)	( $\Delta$ 8.4)
72	6,486.3	1,176.8	22.1	1.6	178.7	5,110.3

資料: 生産, 軍納, 在庫는 韓國洋灰工業協會, 輸出入은 關稅廳  
註: ( ) 안은 對前年 增減率(%)임.

여기에 업계가 대처할 과제는 수출 시장 개척과 국내 수요의 景氣性向 把握이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VI. 景氣戰略

國內需要의 景氣性向 파악이란 바로 業界의 景氣戰略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위에서 景氣의 動力이 투자라고 하였다. 그러면 景氣戰略은 역시 企業投資政策으로 집약될 것이다. 事業投資는 기업 활동에 부수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 가령 자금조달이나, 가격정책, 판로경쟁, 기술혁신, 심지어는 정부의 정책 결정 의사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론경제학에서라면 투자문제를 취급할 때 투자의 한계효율, 자금의 한계비용 등의 탄력성 여부라는 딱딱한 분석용어가 등장할 것이나 그것은 여기서 접어 두기로 한다 해도 이 문제가 어렵고 복잡한대로 어떤 것인가 경기전략의 개요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外延的 條件과 內在的 條件으로 구분하여 생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外延的 條件이라면 먼저 景氣局面의 展開特性과 景氣進路方向을 들 수 있으며 內在的 條件이라면 자체기업의 경쟁력 수준과 투자정책 결정 능력으로 집약된다.

景氣局面은 한국의 경우 개발정책과정에서 국내의 산업별 성장도의 乖離를 수반하는 景氣「리더」部門 또는 景氣先導産業의 市場行動(投資行動이 아님)을 주축으로 政策當局의 경기정책 그

리고 국제경기 동향의 파급 등으로 다양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로 경기진로는 자체 산업(가령 시멘트 산업)의 생산 활동, 시장기능의 팽창력,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생산 요소의 동향(산업간·부문간 이동 현상을 포함한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기업경쟁력이라고 할 때는 ① 제품가격 ② 시장지배력 ③ 원자제조달능력 ④ 생산기술 ⑤ 원가구성 ⑥ 시설규모 및 관리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경영합리화 운동으로서 경영분석론이 발전하게 된 것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위의 항목들이 얼마만큼 건전한가를 판단하고자 한 것임은 물론이다.

기업투자정책은 크게 ① 擴張投資 ② 製品投資 ③ 代替投資 및 ④ 景氣戰略投資로 區分하는 說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모두 景氣戰略의 일환으로 執行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의 네 가지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경기대책으로서의 기업투자 정책은 자본지출의 「안정성」이 가장 긴요하다는 데 있다. 이는 결국 경기 순환에 대응하는 자본 예산 제도의 확립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기는 시계열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기는 다양성으로 일관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인의 감각이 정확해야 한다고 하지만 역시 실증분석과 합리적 처방기술을 거친 경기전략만큼의 실현성이 없다는 말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날이 갈수록 경기인식 없이도 기업을 이끌어 갈 수 있었던 옛날과 같은 시절은 다시 돌아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